

## 2022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8.7) 보도자료 스크랩

2022.08.08.(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매일	NEAR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과정 시행	
2	신문	경북신문	道·NEAR사무국, 대학생 인턴과정 시행	
3	신문	경안일보	NEAR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진행	
4	신문	경북연합일보	道 'NEAR 사무국 인턴과정' 시행	
5	신문	대구경북일보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 지원	
6	신문	경북일일신문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7	신문	대구광역일보	경북도 "NEAR서 국제활동 경험 쌓으세요"	
8	신문	영남매일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 운영	
9	인터넷	경북중앙신문	NEAR 사무국, 경북도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0	인터넷	서울매일	NEAR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1	인터넷	일요신문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2	인터넷	더코리아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3	인터넷	경남에나뉴스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4	인터넷	국제i저널	경북도, NEAR 사무국과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5	인터넷	미디어투데이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6	인터넷	구미뉴스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7	인터넷	세계타임즈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18	인터넷	스쿨TV	경북도-NEAR사무국, 지역 대학생 인턴과정 운영	
19	인터넷	CBN뉴스	경상북도,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20	인터넷	뉴시스	"NEAR서 국제활동 경험 쌓으세요"...대학생 대상 운영	
21	인터넷	세계뉴스통신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과정 시행

경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 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 도·NEAR 사무국, 대학생 인턴과정 시행

### 실무 연수 등 프로그램 다양

경북도가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 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한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서인교기자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진행

###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지역대학생 12명, 2주간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국제화 경험

경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 경북연합일보

2022년 08월 08일 월요일  
003면 종합

## 도 'NEAR 사무국 인턴과정' 시행

###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양성

경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

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영철 기자

#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 지원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인턴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에 참여할 예정이다.

## 경북일일신문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경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 경북도 “NEAR서 국제활동 경험 쌓으세요”

### 대학생 대상 운영

경북도가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운영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와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한다.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 영남매일

##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 운영

경북도, 오늘부터 2주간...해외 전문위원·파견 공무원 교류

경북도가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운영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와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한다.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 NEAR 사무국, 경북도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기사입력 2022-08-07 12:04:17

수정 2022-08-07 12:04:17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편집국 gumi6221@hanmail.net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류효환 승인 2022.08.07 16:27

###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류효환 shilbo@naver.com

---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도정]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外

온라인 기사 2022년 08월 07일 11시 39분

-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 지역대학생 12명... 2주간 시행



[일요신문] 경북도는 8일부터 2주간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하는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으로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해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일본·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도 수여한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한국·일본·중

국·러시아·몽골·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 #경북도, 지역 위기 청소년 찾아...건강한 삶 찾아주기



지역위기 청소년 아웃리치. 사진=경북도 제공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청소년 거리상담
- 여름방학 계기 전국 청소년쉼터 연합 아웃리치 실시

경북도는 지난 5일 포항바다시청 북부여름파출소(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가졌다.

이날 경북도, 포항시, 포항경찰서, 도내 청소년쉼터 등 10곳의 청소년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은 가출 위험 청소년을 발굴·상담 등 조기개입으로 가정 복귀를 돕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연합 형태의 거리상담은 전국 청소년쉼터 각지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일탈 및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청소년 밀집지역을 다니며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상담뿐만 아니라 금연지원 활동, 성상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순찰 차량 등을 활용해 거리순찰(패트롤)을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다양한 홍보물품(물티슈, 응급키트 등)을 배포하며 타투스티커, 야광팔찌,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홍보효과도 높였다.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지역대학생 12명, 2주간 시행

강유찬 기자 hbs7733@hanmail.net

등록 2022.08.07 18:42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서덕수 기자 승인 2022.08.08 09:15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NEAR사무국(포항TP)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덕수 기자



# 경북도, NEAR 사무국과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이연서 기자

승인 2022.08.07 23:19



▲NEAR사무국(포항TP)©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이연서 기자 [ijj@ijj.co.kr](mailto:ijj@ij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기사입력시간 : 2022/08/07 [09:45:00]

안상일 기자



NEAR사무국(포항TP)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  
- 지역대학생 12명, 2주간 시행 -

임양춘 기자 lyc8769@hanmail.net

등록 2022.08.07 09:00

[구미뉴스]=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한성국 📧 / 기사작성 : 2022-08-07 08:37:06

-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
- 지역대학생 12명, 2주간 시행 -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 네트워크

- 수도권
- 경인
- 영남권
- 호남권
- 부울경
- 충청권
- 강원·제주

### 경북도-NEAR사무국, 지역대학생인턴과정운영

2022. 08.07(일) 08:40



[사진] NEAR포함사무국

#### 동북아지방정부들의UN인 국제협력기구NEAR서 12명 2주간 실시

[스쿨iTV]경북도는 이달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 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mailto:hyun@schooli.kr)



#### 오늘의 오피니언

MORE

김형동 의원, 환경부장관 "안동댐..."



[스쿨iTV]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

김동연 지사, 이천 병원 화재현장 간...



[스쿨iTV]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병원 건...

권기창 안동시장, 9일간의 '주민과의...'



[스쿨iTV] 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8기 첫 시민 소통 행보인 '읍 면 동 주...

#### 칼럼

MORE



[주종민 칼럼]이더리움과 ERC-20 표준 기술 이더리움은 2015년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 개...



#### 스페셜

MORE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 수도권 공동...



[스쿨iTV]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최형목)은 인천, 서울, 강원 교육...

한국TOEIC위원회, 지난 7월 24일 토익 성적...

한국국학진흥원의 국학자료 59만 점, MZ세대...



나이키 에어 포스 1 미드 '07 QS

나이키 에어맥스 97 SE

경상북도,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 - 지역대학생 12명, 2주간 시행 -

2022년 08월 07일 [cbn뉴스]



↑↑ NEAR사무국(포항TP)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mailto:youngl5566@naver.com)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 "NEAR서 국제활동 경험 쌓으세요"...대학생 대상 운영

등록 2022.08.07 08:49:52



[안동=뉴시스] NEAR사무국(포항). (사진=경북도 제공) 2022.08.07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운영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와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한다.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mailto: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AR 사무국, 경북 대학생 대상 인턴 과정 시행

디지털편성부 | 승인 2022.08.08 08:20

|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UN, 국제협력기구 NEAR 체험 기회



NEAR사무국(포항TP)

[세계뉴스통신 디지털편성부]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지역 대학생 대상 'NEAR 사무국 인턴과정'을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제기구로서 NEAR 사무국의 업무 수행 체험을 통해 경북 내 대학생들이 국제화 경험을 쌓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NEAR 사무국은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두 차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참가 학생들은 NEAR 회원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위원 및 파견 공무원과 교류하며 실무 연수, 특강,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 경북도청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모의 국제포럼은 실제 국제포럼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자에게는 NEAR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참가 우선권 및 경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모의 국제포럼 우수 참가자 및 홍보활동 우수자 각 2명에게는 사무총장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에 창설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기구이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UN'을 지향하고 있다.



디지털정책부 segyeneews1@naver.com